

##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불륜설'에 입 열었다

등록 2026.03.23 04:53:31



[서울=뉴시스] 유혜주.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얼짱시대' 출신 유튜버 유혜주가 남편 조맹(본명 조정연)을 둘러싼 불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혜주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뷰라이크'에 '남편 바람에 대해 처음 말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된 루머를 전면 부인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유혜주는 "남편이 첫째 유준이를 임신했을 당시 항공사 승무원과 바람이 났다는 내용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며 "근거 없는 소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함구해왔으나, 주변 지인과 편집자에게까지 확인 요청이 이어져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편 조정연 씨 역시 "처음 소문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 사실이 아니기에 그냥 넘어갔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혜주는 "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며 이혼 조건으로 퇴사를 시켰다는 구체적인 가짜 뉴스까지 퍼졌더라"며 해당 루머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혜주는 지난 2019년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조정연 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며 오는 7월 말 출산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